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진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창출된 재화는 결국 모든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자유 시장 경제의 이념은 기대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양편으로 나뉘어 침체하게 대립했던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공감대였던 것을 보아도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소수의 생각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협동조합”이라는 오래된 전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새롭게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러저러한 사회적 이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시대정신의 요구 때문이다. 시대정신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요 이슈들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기독 지성인의 중요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저자 앤드류 맥클라우드스는 협동조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20년간 현장에서 뛰어온 사업가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성경적 묵상은 정교하고 극히 현실적이다. 그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협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 누구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삼위일체” 신학에서 찾는다. 즉,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도 공동체를 이룰 때, 그 형상이 올바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앤드류 맥클라우드 지음 | 홍병룡 옮김 | 아바서원

#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동역회 연구본부장)

저자는 홀로 완전하시어 어떤 결핍이나 필요도 없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이 필요하더라도 한 듯 서로 영화롭게 하시며 협동하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주목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 타락한 인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듯 사사들과 왕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 조력자로 세우시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던 성경의 이야기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협동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롭게 읽어낸다.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중앙 집권화된 지휘체계가 불가피 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섬김의 지도자로 나눔과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셨다는 것과, 초대교회가 통제와 획일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것을 공산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성경적인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던 점을 인용하며 거리를 둔다.(p.133)

책의 마무리 부분에는 협동조합의 원리들을 성경적인 원리에 비춰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의 백미가 아닐까 한다. 특히, 기독교인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는 배타성이 협동조합이 가진 열린 공동체로서의 속성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고민하는 부분은 흥미롭다.

또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권리를 나누어 갖는 민주적인 통제 원리가 성경적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은 매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개개인이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질서 가운데 의도하신 결과로 민주적인 통제를 추구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초대하며 이 책을 마무리 한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몇 사람만 모여도 당장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초대가 자칫 승리주의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주의 뜻이라 확신하는 무언가를 도모할 때조차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수단 만으로는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없는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시도할 것을 중용하며 씨앗을 심는 자가 되도록 초대한다.

“협동조합은 우리의 경제질서 전체를 버리지 않고도 경쟁과 이윤을 상업의 일차 동기로 여기는 행습을 제거할 수 있다.”(p.183)

저자가 가진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 부분이라 생각된다. 타락한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모두 버리지 않고도 그 악한 행습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 그것은 참으로 고상한 비전이다. 창조-타락-구속의 변혁적 세계관을 가진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비전이 아닐 수 없다.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실천하기 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장수영 현재 포항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며 연구본부 본부장이자 기독교문연구회 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사)나눔과 기술, 크리스천 과학기술인 포럼의 공동대표이다.